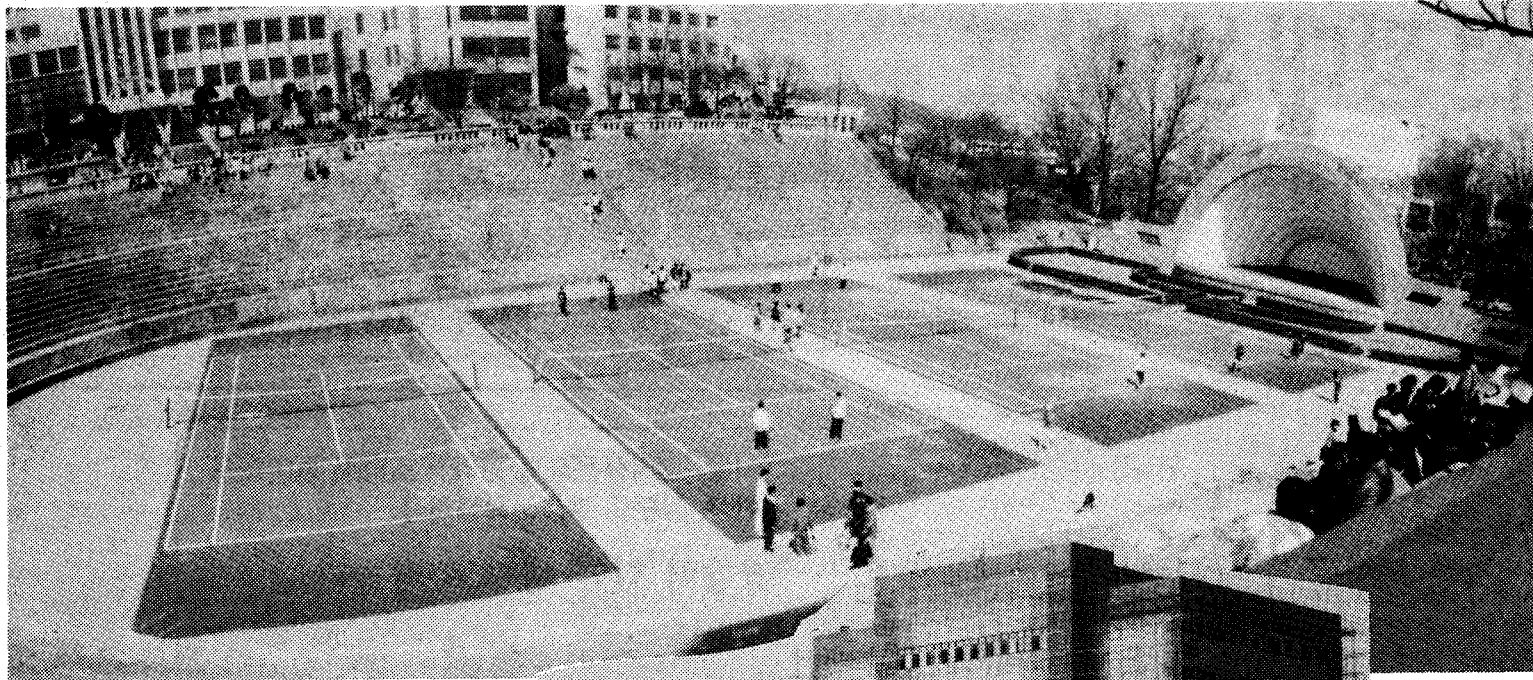


학내 문화공간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의식도 문제가 있다.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주류에서 밀려나 있더라도
대학인만의 참신하고,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문화기획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길...



□ 학내 문화공간 점검

우리는 더 이상 놀 곳이 없다

문화공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던 문화공간이 많다. 대형서점에서부터 시작해 지하철, 레코드샵 심지어는 공중화장실까지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책이나 레코드를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공중화장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화장실이라는 일반사람들의 개념에서 탈피 향긋한 꽃냄새 속에 명곡이 흐르고 시화, 도예, 사진 등을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정말 변화하는 시대의 뛰어난 발상 아닌가.

여의도 광장도 문화공간으로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콘크리트 일색인 도시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만들어 푸른 숲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9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사는 서울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메꾸기 위해 충분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들은 얼마나 문화적이라 할 수 있는가. 이같은 문화공간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업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단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캠퍼스 안은 조금 다르다. 상업적인 장소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들어 나간다.

학내 곳곳의 대자보판에 붙어 있는 공연이나 행사들의 홍보물들은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열의가 깊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행사나 공연의 수에 비해 그것을 매꿀 공간들은 턱없이 부족한게 지금의 현실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크라운관, 노천극장, 복지회관 공연장, 가정대 앞 입간교실 정도다. 이렇듯 공간은 적는데 행사나 공연들은 많으니 자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또한 적은 공간들이 학교에 부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해도 전부 사용 가능한 건 아니다. 특유의 처럼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공연들은 크라운관이나 노천극장에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홍종찬(생물3)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약2-3달전에 크라운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불과 2주도 안돼서 사용이 취소됐다. 문화공연을 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있는 장소마저 사용이 불가능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한다. 크라운관의 경우 한계를 지니

고 있음이 분명하다. 음대가 수업의 연장으로 크라운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캠퍼스도 문화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서울캠퍼스와는 조금 다르다. 학생회관, 한누리소극장, 각 단체 운동장 등 장소는 그런대로 있지만 사용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동계 때는 공간부족 문제가 절실히 나타난다.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열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현실이 열악하다 보니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한 것 또한 당연하다.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문화공간의 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공간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한 이 문제에 대해 염임경(사학4)총학생회 기획부장은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강의실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문제는 자치공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외국의 경우 부족한 문화공간을 실내에서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력이 안

되지만 다른 방책도 모색해 봐야한다."며 "문화공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문앞을 잘 활용하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타대학의 경우 학교앞에서 많은 공연을 하곤 한다. 그리고 가정대 앞 입간교실은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곳은 그 어느곳보다 멋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않듯 문화공간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투자해야 된다."고 말한다.

공간문제, 그것은 학교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서로가 문제의식을 기피하는 생각은 접어두고 먼저 한걸음씩 나서야만 한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다. 학내 문화공간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의식도 문제가 있다. 자극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주류에서 밀려나 있더라도 대학인만의 참신하고,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문화기획으로 대다수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가는 과정을 기대해본다.

(김동혁기자)

캠퍼스 예술인

□ 한그림 회장 전성민(경영2)군

만화와 평생 친구로 남고 싶어

얼룩덜룩한 16집지 한 장과 낡은 펜 한자루.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수많은 문자의 나열로 꾸미기 보다는 한바닥의 만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전성민(경영2)군을 만나 보았다. 전군의 큰 체구와 짧게 깎은 머리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충분

했다. 그러나 그 위압감은 기우에 불과했다. 외모 이면에 숨겨진 순수함과 밝은 성격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다. "저는 만화를 예술과는 차별을 두고 싶습니다. 딱딱하고 난해한 예술보다는 차라리 편안하고 쉽게 대중의 마음속을 파고 드는 것이 훨씬 더

낯지 않음 까요? 저는 만화의 매력 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만화는 인생의 동반자였다. 어릴때부터 재미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 직접 조직하고 활동한 만화 동아리. 그리고 지금은 한그림까지. 만화에 대한 주위의 굽지 않은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화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고 한다. 자신이 예전에 그린 작품 하나하나를 보여주며 설명해주는 모습은 만화에 대한 그의 열정을 증명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시사만화를 주로 그렸 습니다. 만화로 세상을 풍자하고 개혁의지를 복돋기 위해 그런 셈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만화를 그림에 있

어 어느 한 관점으로 편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화를 보는 대중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장르의 만화라도 그럴 생각입니다."

학교측에 대한 바람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학생회관의 동아리방 배정 문제를 지적했다. 만화를 그리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 하지만 현재의 동아리방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군은 만화를 직업으로 택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만화를 이윤의 획득 도구로 쓰기 보다는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다고 그는 자신있게 말한다.

(송준우 기자)

시리즈 — 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⑭ 빗살무늬토기와 개벽



▲신석기 빗살무늬토기

인류가 저급한 수렵이나 채집경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원시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면서 토기와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식량생산과 직물 기술의 개발 등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은 신석기 시대(BC 4천~BC 1천)이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줄문토기, 유문토기, 어골문토기, 기하학문토기)는 저장용이나 취사용으로 주로 해안가나 큰 강가 그리고 호숫가, 도서지방 등 130여 곳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다. 진흙으로 구워 만든 용기류를 토기라 하며 도기와 자기로 나눌 수 있다. 진흙속의 광물이 용해되지 않도록 섭씨 6백~8백도에서 구워진 토기는 고열로 구워져 기벽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된 경질토기도 있으며 재료, 성형, 문양, 속성, 용도, 형태 등의 형식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 문화는 주로 이로 수렵 및 채집에 의하여 전개된 토기문화인 것이다.

토기는 생활 주변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소성이 있어 성형이나 조형, 서문 등의 작업이 용이하고 굽는 방법에 따라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돌이나 금속 등에 비해 질, 형태, 색깔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깨지기 쉬운 반면 새로 만들기도 쉽고 신진대사가 빨라 제작자의 창이나 소속집단의 문화 의식이 예민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색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10월은 예로부터 상달이라 하여 한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으로 제사를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열고 있다. 그리고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율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날(9일), 국군의 날(1일) 등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고 개원 26주년을 맞이하는 경희의료원(5일)도 있다.

오일환 (중양박물관 연구실)

문화단신

라니메이션? 리아의 엉뚱한 콘서트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 온 여성 록커 리아가 그녀의 첫 번째 초대형 야외콘서트를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갖는다. 우선 이번 콘서트가 내세우는 첫 번째 '라니메이션' 즉, 라이브콘서트와 애니메이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대담함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지난 6개월간 있었던 라이브콘서트의 무대를 전파 매진으로 이끌었던 리아는 바로 그 힘으로 1천5백명 수용규모의 노천극장 무대를 꼭 채울 것이다. 공연은 오는 19일 오후 6시이며 문의 및 예약은 (주)라이브클럽으로 하면된다. 전화는 766-5417이다.

노래여울 정기 공연 서울캠퍼스 민중가요 동아리 노래여울이 오는 10월 제15회 정기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노래여울은 창작곡 2곡의 '영산강, 서른을 바라보며' 등의 민중가요 11곡을 선보인다. 공연 장소는 복지회관 1층 공연장이고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다.

KETI로부터 KS A/ISO 9002인증을 획득한 업체 사후봉사 우수업체

획기적인 아르바이트 제안 하나!

지금, 성원정보기술의 Web Site 컨설턴트에 가입하십시오!

<http://www.sungwoncnc.co.kr/>
<http://www.sungwoncnc.com/>

성원 사이버컨설턴트란?

성원정보기술의 Web Site를 이용하여 제품의 선택, 사양의 재구성, 주문서 발송 및 A/S신청까지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판매 관리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무자본, 무절로, 무재고, 무담보의 획기적인 판매 시스템의 주인공입니다.

성원 사이버컨설턴트와의 약속 5가지

1. 상담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면 상담수수료를 드립니다.
2. 판매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때 설치수수료를 드립니다.
3. A/S대행시 본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드립니다.
4. 판매실적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지속적인 광고지원과 경쟁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공급을 약속합니다.

지금, 성원 사이버컨설턴트로 가입하시면 -

1. 10월 20일까지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마일리지 점수 100점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2. 선착순 1,000명에게 예쁜 전화카드를 드립니다.
3. 가입신청서 작성시 컴퓨터 실력, 상담능력 및 경력사항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쳐 컴퓨터 전문집지 1년 정기 구독권(10명), 도서상품권 5매(20명)를 드립니다. ('97년 10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함)

가시지불수환 승용차타기 비/아파트/

성원 사이버컨설턴트 가입 1만명 돌파시, 쿼츠의 경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추첨을 통해 승용차를 비롯한 부가품들을 드립니다.

- 1등 (1명): 라노스 주리엣
- 2등 (2명): 펜티엄II-233 컴퓨터
- 3등 (3명): 펜티엄MMX-166 컴퓨터
- 4등 (10명): PCS 016단말기
- 5등 (25명): 56Kbps FAX MODEM
- 6등 (80명): 도서상품권 5매
- 7등 (200명): 음악CD

MISSION ST70A-P2DVD W289만원

Pentium II 233MHz, 4GB, 32MB, DVD-ROM, 64bit 통합 카드(TV), 3D PNP, 56 Kbps, CD Title 8중

MISSION ST50A-P5MM W168만원

MMX166MHz Pentium, 2.5GB, 32MB, 24×CD-ROM, 64bit PCI(2MB), 3D PNP, 56 Kbps, CD Title 8중

MISSION ST50A-P5MS W114만원

166MHz 6×86MX, 2.5GB, 16MB, 16×CD-ROM, 64bit PCI(2MB), 3D PNP, 33.6 Kbps, CD Title 8중

MISSION ST70A-P2MM W241만원

Pentium II 233MHz, 4GB, 32MB, 24×CD-ROM, 64bit PCI(2MB), 3D PNP, 56 Kbps, CD Title 8중

MISSION ST50A-P50A W148만원

MMX166MHz Pentium, 2.5GB, 32MB, 24×CD-ROM, 64bit PCI(2MB)

*판매가는 부품의 시세에 따라 변동됨.

SUNGWON

성원정보기술(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3-10 성원빌딩 2, 3층
TEL: (02)582-0586, FAX: (02)522-2333